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18	05. 25	06. 01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장래환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장래환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어버이주일 -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됩시다.
4. 브레멘지역 청년 연합 찬양예배 - 5월29일(목) 오후2시 한민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설교-한민교회, 기도회 인도-반석교회, 축도-연약교회)
5. 21대 대통령 재외 선거 - 5월 20~25일까지(8~17시까지, 함부르크 총영사)
6. 나눔의 시간 - 청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지혜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함께(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어버이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7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종열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요 19 : 25 - 27(신p182) (Johannes 19:25-27)	최종열 성도
특별찬양 Sonderlied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효도 - 하나님의 명령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백승민 자매의 갑상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4. 브레멘지역 연합찬양제를 위해서(5월29일, 오후 2시, 한민예배당)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비판에는 감동이 없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정죄와 비판을 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향해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 비판하는 자신이 비판 받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비난이 공의를 위한 희생인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것은 정죄와 비난이 한 사람의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서도 여전히 정죄를 일삼는 리더가 되기 쉽습니다. 교인을 비난하는 도구로 설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무엇보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에 정죄와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을 행합니다. 비난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서로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주려 힘쓰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강박한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성도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도자를 정죄할만한 상황이라도 정죄하기 전에 생각합시다. 성도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를...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 / 김형근목사(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2. 정죄와 비판으로 받은 고통이 있는지 나눠보세요